

## 주사랑교회 소식

###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 2. 부활절 세례예식

2025년 4월 20일 부활절 감사예배를 맞이하여 세례예식을 갖습니다.  
세례대상 : 이종빈 학생  
세례점감 : 세례수(이광근 안수집사), 꽃다발(임명숙 집사),  
선물(임명숙 사모), 사진촬영(성도들 중-세로사진)

### 3. 부활절 세례예식 / 세례신청

2025년 4월 20일 부활절 감사예배를 맞이하여 세례예식을 갖습니다.

### 4. 2025년 축복 심방

2025년 4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담임목사 및 사모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4년 4월 20일 (주일 오후 - 정현숙 권사 가정)

### 5. 아하브코업 정기모임 (BB수료식)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오전 10:30 ~ 오후 4:00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및 교육관

### 6.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중), 이다남(병가), 박영대(병가), 임명순(무릎인대파열, 염좌)  
김혜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정지혁 집사(출산, 4/8) 정현숙 권사(근무력증)

### 7. 2025년 4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3.4 ~ 4.3)

4/07(월)-이재희 양비      4/12(토)-김가영 양비      4/14(일)-한은총 양비  
4/15(화)-김민준 학생      4/20(일)-오현수 형제

##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4/20	부활절 대신(초청) 총동원 주일 세례예식 / 성찬예식
04/21	자동차종합검사(아크로모터스)
04/22	아하브코업 홈스쿨 (BB수료식)
04/27	장어인 선교주일사역소개
05/01	찾갈맞이 일석예배 (성찬예식)
05/04	어린이 주일
05/11	야비 주일
05/13	아하브코업 홈스쿨 정기모임
05/15	교회 어르신 위로모임 북한선교위원회 13회 정기총회
05/18	스승의 주일
05/25	부부주일 성결교회주일중생 성결신우 재림

## 주일 사랑 운행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탑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탑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당 후 진행)	

##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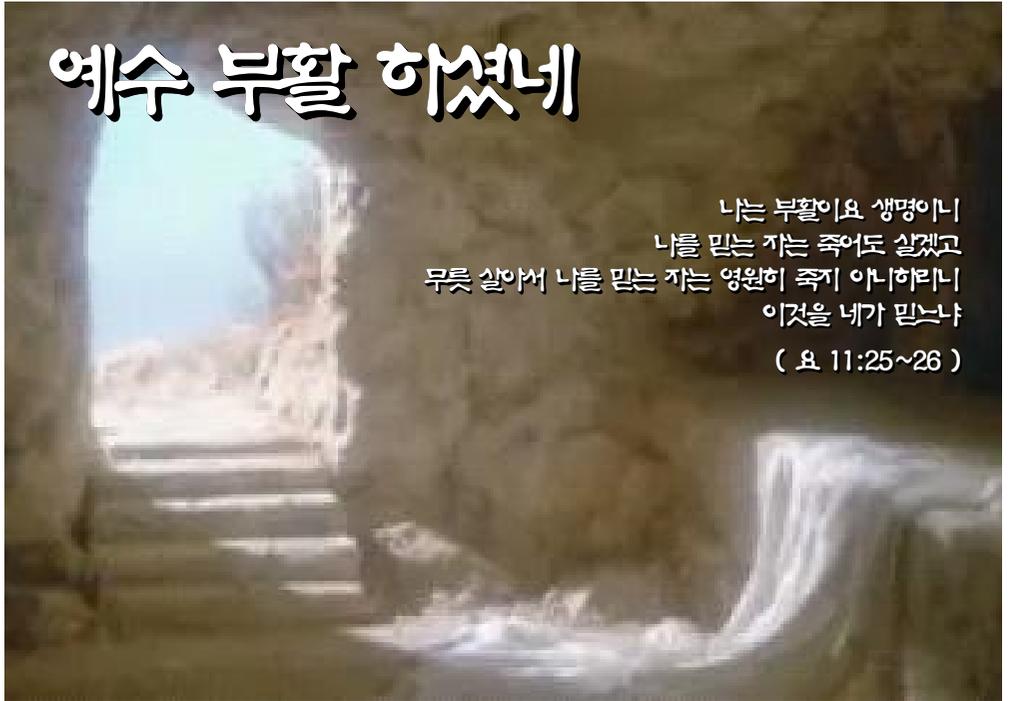


## 주일대표기도

4/20	박제연 집사
4/27	이광근 안수집사
5/04	이재우 어린이
5/11	임명자 집사
5/18	임명숙 집사
5/25	김혜숙 권사
6/01	정애자 권사



주사랑 8권 16호 | 2025년 4월 20일  
창립 2017.11.25 | 부활절 대신사 초청 총동원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부활절 감사주일 / 세례예식 / 성찬예식) 인도: 집례자

- ※ 목 도 ..... 시편 118:14~24 ..... 인 도 자
- ※ 찬 송 가 ..... 찬 160장 ..... 다 같 이  
( 무덤에 머물러 )
- ※ 사도신경 ..... 다 같 이
- ※ 주기도문 ..... 찬 635장 ..... 다 같 이
- 성시교독 ..... No.133 부활절(1) ..... 인도자/회중
- 찬 송 가 ..... 찬 165장 ..... 다 같 이  
( 주님께 영광 )
- 대표기도 ..... 박제연 집사  
(교회학교 교육부장)
- ※ 성경봉독 ..... 요한복음 20:11~18 (신 34) ..... 박제연 집사
- 세례/성찬 ..... 찬 229장 ..... 집례자  
(세례 / 성찬위원 : 이광근 안수집사)
- 광 고 ..... 인 도 자
- 말씀인도 ..... 할렐루야, 예수 부활 하셨네 ..... 담임목사
- 봉헌찬송 ..... 찬 171장 ..... 다 같 이  
( 헌금위원 : 이재희 학생 )
- ※ 축 도 ..... 담임목사  
(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

##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설 일 조 : 강주 임명순 아기를 장사라
- 주정헌금 : 아기를 감혜숙 문재호 박제연 오동영 임명순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승훈 한정안
- 감사헌금 : 박태성 이광근 박제연(자녀) 이선희 이재희(생일) 전복순 정현숙(비전)
- 부활감사 : 신정인(한누리교회)
- 심방감사 : 이광근 박제연
-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태민 한희락
- 구역헌금 : 감혜숙 박제연 한승훈 임명순
- 전도헌금 : 장사라(이옥성, 장세규, 장세경, 최란희, 장지우, 장연우, 장은비)
- 후원헌금 : 기은정(대은교회) 세한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 통일선교비전기도의

오후 1:00 .....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 말 은 이  
성경봉독 사도행전 10:34-43 (신 205)  
말씀제목 화평의 복음을 반가  
말씀인도 ..... 한승훈 목사

## 수요 기도회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5:19-26 (신 282)  
말씀제목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

##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 부모님 중  
성경봉독 열왕기상 22:29-40 (구 554)  
대표기도 ..... 자녀들 중  
말씀제목 우연으로 가정한 하나님의 화살

##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시편 118:1~24 (구 889)  
말씀제목 교회를 위해 주신 예수의 몸

## 새벽 기도회

새벽5:30 매일성경 (월~금)  
20일(일) 눅 13:10-17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심  
21일(월) 눅 13:18-21 까까와 누룩의 비유  
22일(화) 눅 13:22-30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3일(수) 눅 13:31-35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아  
24일(목) 눅 14:1-6 수종행 든 사람을 고쳐심  
25일(금) 눅 14:7-14 의인의 부활 때에는  
26일(토) 눅 14:15-24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27일(일) 눅 14:25-35 제자가 되는 길이란  
(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

### 국기선교(오주교훈소)



### 해외선교(모로코)



###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 가타기관 선교

오른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인우용마을

⑤ 한 때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셨던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겔 5:11~12)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 )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삼분의 일은 ( )으로 죽으며 ( )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의 일은 너의 사방에서 ( )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의 일은 내가 ( )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⑥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겔 6:9~10)

너희 중에서 살아 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 )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탄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 )을 행하였음이라 그 때에야 그들이 ( )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⑦ 에스겔은 범죄 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바닷안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선포했나요? (겔 7:2~3, 6)

<sup>2</sup>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 ) 이 땅 사방의 일이 ( ) <sup>3</sup>이제는 네게 ( )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sup>6</sup>( )이 왔도다. ( )이 왔도다 ( )이 너에게 왔도다 불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⑧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요? (겔 7:4, 9)

내가 너를 ( ) 여기지 아니하며 ( )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⑨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겔 8:3)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 )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 )가 있는 곳이라

⑩ 요시아 왕 때의 서기관중 한 사람으로 성전 수리 시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며 종교개혁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70인 장로와 함께 서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된 사람은 누구? (겔 8:11)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칠십 명이 그 앞에 섰으며 ( )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 같이 오르더라

(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에스겔을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 (겔 3:18~21)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 )을 ( )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 )을 보존하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 )은 내가 ( )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 )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 )

② 에스겔은 하나님과의 첫 만남 이후 약 10년간 침묵하였습니다. 이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실 때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은 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겔 3:26~27)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 )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 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 )임이니라

③ 범죄 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선지자에게 깨우치기 위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함께 짊어지라고 지시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겔 4:4~6)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 )을 짊어지되 내가 놓는 날수대로 그 ( )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 )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 )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 )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 )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 )로 정하였나니 ( )이니라

④ 에스겔은 거친 곡물인 쾡과 팥으로 만든 빵 230g과 물 0.6L로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배부름을 구걸했던 범죄에 대한 징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겔 4:10~12)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 )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 )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 )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신앙의 향기 - 내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지 않는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3시,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증기선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탄 배였습니다. 당시 27살의 청년이었던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첫발을 디딜 때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깨뜨리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를 얻게 하소서!” 이후로 아펜젤러 선교사는 44세가 되던 해였던 1902년에 목포에서 배가 침몰해 순교했습니다. 조선 땅에 고결한 젊음을 바친 한 청년,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흑암의 조선 땅에 부활의 복음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두 가지를 말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죄 사함이 없고, 부활이 없는 영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과거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여는 출입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아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갑니다. 부활 없는 희망이 없고,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줄리어스 시저의 생존보다도,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은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여기에 있다.” 성경이 부활을 말씀하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을 증언했고, 기독교 2천 년 역사가 피로 증거 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가운데 부활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의 위대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진리를 소유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기꺼이 죽을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체험했는가?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부활을 체험했다면 다시 물어 봐야 합니다. 내 삶이 정말 말씀대로 변화를 받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더 변화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고 계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선언합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885	오므리 왕의 등극	왕상 16:23
찬송가	찬 322장	다 같이	824	아합의 등극	왕상 16:29
대표기도		자녀 중		엘리아의 사역	왕상 17:1-24
성경봉독	왕상 22:29-40	말은 이	860	아합과 벤하닷의 허무한 대결	왕상 20:1-12
말씀인도	우연으로 가정한 하나님의 화살 부모님	중 이		하나님이 아합을 위해 싸우다	왕상 20:13-21
합심기도		다 같이		한 선지자의 아합의 심판 선언	왕상 20:35-43
헌금기도	찬 321장	말은 이		나봇의 죽음과 아합의 불순종	왕상 21:1-10
주기도문		다 같이	853	아람과의 전쟁과 아합의 죽음	왕상 22:1-40

■ 들어가는 말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불려온 선지자 미가야에게 전쟁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전쟁에 올라가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아합을 죽이기 위한 거짓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예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미가야에게 폭행을 했으며,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만 물과 떡을 주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아합은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제 누가 진정한 선지자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과 나의 생각 사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도는 부도덕한 인격과 몰지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29~30).**

아합 왕은 전쟁에 참전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위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치르러 요단강 동편 70km정도 떨어진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왕의 대로와 주요 도로가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합 왕은 앗수르가 힘이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아람과 전쟁하여 이곳을 되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이 변장하려는 이유는 미가야 신탁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올라왔지만, 마음 한편에 두려움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서라도 다른 사람처럼 가장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사밧 왕은 사위였습니다. 자신은 일반 군사 옷차림으로 변장하여 신분을 위장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게 합니다. 아람 왕이 아백 전투의 수치를 갚기 위해 자신을 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사위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태도는 비겁한 전술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이 자기 대신에 적들의 공격 대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던 것은 용기가 아니라, 겁쟁이의 만용이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나봇의 살인 공모 사건에 대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준엄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며 심판을 유예하신 일을 있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왕상 21:29). 아합은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31~33).**

아람의 왕은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특별한 명령을 지시합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북이스라엘의 지휘관과 병사 몇 명 잡는 것보다 아합 왕을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히 왕이 이끄는 전투에서는 왕이 죽으면, 부대는 그대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람 왕의 생각과 명령은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했던 예언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을 통해 아합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전 명령에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맹추격합니다. 여호사밧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자아크). ‘자아크’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나 위협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몰리자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부르짖을 때, 아람의 용병들은 자신들이 쫓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추격을 멈춥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대하 18:31).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도, 악인과 의인의 뒤엉킨 대 혼란 속에서도, 촌음의 긴박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찾아내 도와주십니다.

**세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34~40).**

여호사밧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 반면, 아합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아합을 겨냥할 의도도 없이 그냥 대충 쏜 화살에 맞게 됩니다. 그것도 가슴 갑옷 솔기 사이에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하지 않게’, ‘갑옷 솔기 사이에 맞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일은 일어날 확률이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무장한 아합의 갑옷을 빗겨, 가슴막 사이 이음새를 꿰뚫은 ‘우연히 쏜 한 발의 화살’에 아합의 계약은 깨지고,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은 적중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피하기 위해 왕복을 벗고, 사위 여호사밧 왕을 미끼로 세웠고, 자기 보호용 갑옷으로 철저하게 신변보호를 위한 무장을 했지만, 여호와께서 날린 화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합이 와이었고, 갖은 책략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여호와와의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화살을 맞은 아합은 병거를 모는 자에게 자신이 화살을 맞았으니 빨리 전쟁터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합의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전쟁이 점점 치열해져 그의 병거는 아람 군대에 막히게 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저녁 무렵에야 돼서야 아합은 병거에 피를 많이 흘리고 죽게 됩니다. 결국 아합은 죽음을 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고통스럽게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왕이 죽고 저녁 무렵이 되자 ‘각자 집으로 가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가야의 예언처럼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 미가야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 됩니다.

뭘춰서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멈출 때를 놓친 채 내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인생의 제동장치(브레이크)가 망가진 채,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깨닫지 못한 채 멸명의 길로 내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의 경고를 거슬러 내 뜻과 고집만 앞세운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화살로 멈춰진 아합의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멈추지 못한다면 타의로 멈춰질 수밖에 없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